

‘귀환’의 역설*

— 〈최척전〉에 재현된 ‘귀환 없는 이주’ 불능성의 감각

최기숙**

1. 이주와 이산: 상상의 전승과 시선의 정치
2. ‘이주/이산’의 ‘조건/맥락’과 동력, 사회적 상상
 - 2-1. 세계: ‘세계-조건/맥락’으로서의 ‘이주/이산’과 ‘가족 제도’
 - 2-2. 주체: ‘이주-주체’의 정체성 수행과 자기-변형(위축/유예/위장/조정)
 - 2-3. 시선: 유동하는 관계, 타자의 힘
3. ‘이주/이산’의 경험 자산: 공감 능력·자기 철학·희망 의지
 - 3-1. 경계선 안팎에서 필요한 것: 소통의 테크네와 철학
 - 3-2. ‘인문’이라는 세계-경험과 사회적 영성
4. 귀환의 역설: ‘가족/젠더’ 서사의 탈/신화화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이주/이산을 둘러싼 한국인의 사회적 상상력을 재검토하고, 여기에 내재된 ‘가족 서사’의 신화화 과정과 주체의 정체성 변동(젠더 문제 포함)과 재구성 과정에 주목하기 위해, 17세기 조선에서 유통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전서사 〈최척전〉을 ‘유랑/이주/표류’하는 삶의 조건과 체험 주체의 경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주/이산에 대한 한국인의 뿌리 깊은 사고 유형, 상상력, ‘대상/주체/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재성찰하는 고전 연구의 방법을 제안했다.

이때 ‘비문자-감성’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억눌린 감정과 표현하지 못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3)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한 감각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을 구성하고 외적으로 억압되는지를 해명했다. 또한 이주 주체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과 행위, 철학에 주목함으로써, '귀환'을 자연화하는 관점이 '귀환하지 못한 자'와 그 삶을 불완전한 것으로 사유하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성이 지닌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최척전>에 재현된 이주의 계기와 양상 및 주체의 사회적 위치와 타자와의 관계 방식을 분석하고, 비/자발적으로 주어진 주체와 환경의 관계 조형 방식, 이주자로서 경험하는 정체성 변용, 위장, 은폐, 조정의 문제에 함축된 '자기 변형'과 재구성의 문제를 '정체성 수행'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했다. 이주 주체가 의식적으로 위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체가 상정한 '진정성'과 '가치'의 내역을 조명했으며, 정체성이 숨겨질 수 있다는 오해 속에서 위장해야 하는 자의 '고통'은 투명하게 처리되어 사유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다.

젠더적 차원에서는 국제적 이주의 과정에서 여주인공 옥영이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국의 남성-지배 사회에서 포로-감시, 지배-복종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전략을 확보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러한 자기 은닉과 대리 수행, 동화의 방식이 '이주자의 위치성'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이미 17세기 소설에서 공감적 요소로 확보되었음을 해명했다. 또한 지역적 경계를 넘는 '이주' 과정에서는 국적, 지역, 인종, 언어적 경계를 넘는 '자기 철학'이 확보되어야 '인륜성'을 지키는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해명했다.

(주제어: 최척전, 17세기, 귀환, 역설, 이산, 디아스포라, 동화, 인륜, 가족, 자기 철학, 사회적 상상)

1. 이주와 이산: 상상의 전승과 시선의 정치

최근 한국이라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시각의 디아스포라¹⁾ 연구는 대체로 ‘결혼 이주’와 ‘노동 이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지구적 차원의 이주와 이동이 일상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집을 떠나는 이주 행위는 특정 계층, 인종, 국적, 성별, 세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재된 현상이다.²⁾ 전지구적 이주와 이동을 둘러싼 현상이 ‘이산’의 의미망과 연결되는 것은 그것이 자발적 형태를 취할지라도 ‘부득이함’,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강제와 강요의 의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³⁾ 이주/이산의 문제는 삶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 이 글에서 ‘이주/이산’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세계 변화에 대한 일상의 감각을 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 문제를 한국 문제로, 이를 이웃이나 타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주체와 나 자신의 문제로 사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1) ‘~를 넘어, ~를 지나는 뜻의 ‘dia’와 ‘흩뿌리다’를 뜻하는 ‘speirein’의 합성어인 디아스포라(Diaspora)는 유대인의 추방과 이산을 가리키는 특수하고 제한적인 신학적 개념에서 유래했다. 추방을 뜻하는 히브리어 galut와 dispora는 시간이 흐르면서 추방, 고난, 다가올 구원이라는 의미의 diaspora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이주를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수용되었다.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 최영석 옮김, 앨퍼, 2016, 10-15, 22쪽. 이 글에서는 어원적 의미에 정합된 디아스포라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진행되는 전지구적 이주와 장/단기 이동을 모두 포함해 논의하되, 특히 이주/이산의 경험을 둘러싼 일상의 감각, 주체와 타자의 경험, 이에 대한 시선과 상상력의 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 2)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4.
- 3) 결혼과 노동 이주의 대표적 원인이 경제적 빈곤인 점, 이들의 이주로 인해 확보된 재화의 일부가 자국으로 상환되는 점 등은 이들의 이주가 비록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정주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국에 있는 가족과의 원치 않는 ‘이별’을 전제로 성립된 ‘이산’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최근의 사례 연구는 Gan Yue(甘悦), 『한국 내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실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을 참조.

이 글이 주목하는 바는 ‘디아스포라’가 전지구적 연결망에 따른 세계화가 진행되는 21세기적 흐름에 따른 보편적 현상이며, 이러한 사회 변동은 자연스럽게 그 이면에 국민국가와 가족 개념의 해체가 현실화된 맥락을 전경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통해 오히려 그것이 더욱 강화된다는 역설적 지점이다. 이는 ‘이주/이산’의 과정을 미완의 생으로 간주하고, ‘귀환’을 그것의 종착점이자 완성적 귀결로 상상하는 사유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이주가 불가피하게 강요된 부정적 사안이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선택된 삶의 동력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그 이면에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문제가 연동되면서 발생된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매개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과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이주의 문제가 가족 이산과 연결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가족구성원의 분리가 초래한 삶의 형태 변화, 선택적 비혼과 비가족화 양상, 국적 선택 문제, 또는 탈자국 중심주의적 삶의 양태 및 이를 둘러싼 제도화의 재점검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계화의 경향은 오히려 국민국가의 강화(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강조한 자국민주의의 부활, 타국민/타민족 이주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상기해 볼 것), 혼인 가정 중심의 가족 제도의 공고화로 이주자의 삶을 압박하는 듯하다(합법적인 이주의 조건은 노동하거나 결혼하는 방식이다).⁴⁾ 세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세계를 규정하는 제도나 법, 관습 등은 여전히 변화 이전의 ‘장치’에 의존해 있다. 당연히 변화한 시대에 필요한 문화, 관습, 예의, 태도, 시선, 인

4) 케빈 케니(Kevin Kenny)는 일부 국가에서 경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이나 투표권을 제공하는 대신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민족국가가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 최영석 옮김, 엘피, 2016, 180쪽.

권감수성 차원의 대응은 미숙하고 불완전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그 불균형이 초래하는 문제는 온전히 이주의 주체가 감당해야 할 개인의 몫으로 상환된다. 불법체류, 이중국적, 이주민 혐오와 무시, 폭행, 살인 등의 사회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진행되는 이주와 이산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사회)의 문제로 사유하기 위해, 특히 이주와 이산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과 상상력의 문제를 재점검하기 위해, 17세기 조선에서 유통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전서사 <최척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이산의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상상력을 재검토하고, 여기에 내재된 ‘가족 서사의 신화화 과정과 주체의 정체성 변동(젠더 문제 포함)과 재구성 과정에 주목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주/이산의 서사를 중심으로 <최척전>을 재독해하는 방식으로, 이주/이산을 둘러싼 현재적 시각의 형성과 전승에 영향을 미친 전통 시기의 상상력을 경험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이주/이산에 대한 한국인의 뿌리 깊은 사고 유형, 상상력, ‘대상/주체/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재성찰하기 위해서다.

<최척전>⁵⁾은 17세기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한문소설이다. 중편 정도의 분량이지만, 삼 세대에 걸친 유랑과 표박, 귀환의 여정을 담고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장편에 해당한다.⁶⁾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국 내부

5) 분석 텍스트로는 일본 천리대 소장본을 번역하고 원문을 소개한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을 활용했다. 논문에 인용할 경우, 이 책의 307-324쪽에 수록된 한문 원전 <崔陟傳>을 활용했으며, 번역은 필자가 다시 했다.

6) 고전소설 연구 분야에서 <최척전>은 주로 애정전기소설로 분류되었다. 한문으로 쓰인 애정전기소설은 지식인의 창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심미성이 두드러지고 정화된 감성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척전>에는 기자치성과 현몽, 부처의 인도 같은 민간의 심성 구조와 환상 요소가 구조화되어 있어, 소설을 둘러싼 감성 구조가 과연 지식과 신분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 역으로 이를 통해 민중과 서민의 정서는 날 것이어서 정제되어 있지 않다가, 정화된 감성의 향유는 교양적인 것이기에 상층 문화라는 도식을 재고하는

의 이민족 침략(호족의 명나라 침략) 등 조선과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최척전〉을 이주, 또는 이산의 서사로 읽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 작품은 최척과 옥영, 그들을 둘러싼 가족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중국, 일본, 안남 등을 떠돌며 이합집산하는 귀환의 여정을 서사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작중 인물의 이주와 이산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사 전개를 최소화하거나 서사 시간 자체를 압축함으로써, 이야기의 부재, 또는 결락을 정주의 조건으로 맥락화했기 때문이다.⁷⁾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최척전〉의 초현실주의적 요소는 영웅소설 등 국문장편소설에 확대 계승되었으며, 사실주의적 서술태도는 야담계 한문단편이나 전계 한문단편에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고 한 박희병의 분석은 본 연구의 판단과 접맥된다. 박희병, 『최척전: 16·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 작품론』, 집문당, 1990, 103-104쪽.

- 7) 〈최척전〉 텍스트에서 옥영의 행로를 표현한 단어는 ‘유리(流離)’, ‘전도(轉到)’다.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랑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45쪽을 참조. 〈최척전〉을 포로와 가족 이산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연구사의 이른 시기부터다. 소재영, 『奇遇錄과 被虜文學』, 『임병양림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265-285쪽; 박희병, 『최척전: 16·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 작품론』, 집문당, 1990, 83-106쪽.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최척전〉을 ‘유랑’, ‘포로’, ‘동아시아’, ‘가족서사’라는 키워드와 연관시켜 분석한 것은 일정정도 이 논문이 지향하는 ‘이주/이산’의 논제와 문제의식이 중첩된다. 고영란, 『17-18세기 한일문학 속 월경(越境)과 결혼』, 『일본어문학』 68호, 한국일본어학회, 2016; 김용철·신승호, 『〈최척전〉 속의 동아시아중해와 대항해시대』, 『국제어문』 69호, 국제어문학회, 2016; 김용기, 『17세기 동아시아 전란 체험과 다문화 양상 비교』, 『다문화콘텐츠연구』 22호,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원, 2016; 김경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전〉』, 『고전문학연구』 43호, 한국고전문학회, 2013; 강상순, 『한국 고전소설 속 중국 배경과 중국 인식』, 『고전과 해석』 15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13; 신선희, 『전란이 낳은 이방인의 삶』, 『장안논총』 33호, 장안대학교, 2012; 장경남, 『임진왜란 포로 기억의 서사화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2; 장경남, 『임진왜란기 포로 체험 문화과 가족애』,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8; 권혁래, 『〈최척전〉에 그려진 ‘유랑’의 의미』, 『국어국문학』 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 이 연구들은 동아시아와 전란이라는 지리적, 역사적 맥락을 〈최척전〉이라는 텍스트 분석과 연결시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바는 ‘유랑’과 ‘이주’, ‘부표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최척진〉을 재조명함으로써, 이주의 감성에 대한 고전적 형상화와 문제의식을 재성찰하는 작업이다. 그런 이유로 이 논문은 〈최척진〉의 서사 분석을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서사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상상력을 성찰하는 매개나 전제로 삼아,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의 감성구조(mentalité)를 해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이주의 종착점을 ‘귀환’에 두려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귀환’의 구조야말로 국가, 민족, 지역, 가족, 가부장 등 제도적 안정이라는 환상을 ‘전경화하는’ ‘신화화’ 작업에 다름 아님을 논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때 〈최척진〉의 등장인물이 ‘떠밀림’ 또는 ‘돌아옴’이 보여준 인물의 행동과 반응, 감성적 재현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의 압축이 발생하거나 인물의 감정과 의사가 재현되지 않은 부분, 유동하며 이주하는 자로서 겪었던 곤경과 ‘말할 수 없는’, 또는 ‘말하지 못한’ 것들(감정, 정체성 위장과 왜곡, 억압과 통제, 호혜적인 압류의 딜레마와 저항불능성 등),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갖추게 된 경험 자산과 자기 철학(자기의 윤리), 관계 맺기 등에 주목한다. 이때 다음의 사안에 집중한다.

첫째, 〈최척진〉에 재현된 이동, 이주, 이산이 인물에 따라 다양하게 조건화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지역, 국적, 신분, 젠더, 연령 등 주체의 사회적 위치를 다양하게 조건 짓는 요소에 따라 이동/이주/이산의 체험이 갖는 양상이 다층적으로 설정되었음에 주목하고, 이를 17세기, 또는 조

기고 있어, 이주/이산의 일상적 감각과 시선, 주체의 조정 문제 등, 본 논문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다루지 않았다. 다만, 김경미의 논문 179-180쪽에서 작중 인물의 ‘소통’에 대한 분석은 주체의 자기 조정과 재구성이라는 본 논문의 논지와 접맥되는 바가 있다.

선후기라는 역사적 맥락과 상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산의 삶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 삶의 행로로서 사유될 수 있음을 해명한다. 그리고 이산의 삶을 바라보는 서사적 시선이 현실의 가족제도를 재성찰하거나 강화하는 양극화된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해명한다.

둘째, 주체과 환경(세계)의 관계 사유의 차원이다. 최척전에서 옥영과 최척의 '이동'과 '이주'는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된 것, 또는 주체의 의지가 박탈된 가운데 성립된 것이었기 때문에, '귀환의 의지'는 주체성과 자발성을 탈환하는 행위성의 의미를 담보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이야기는 귀환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귀환 이후의 서사를 풀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통해 이야기가 종료되는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바로 그 지점이 귀환을 '전경화'하고 '자연화'하는 '신화화'⁸⁾ 구조임을 해명한다.

셋째, 이산을 '극복'의 대상으로 사유함으로써, 귀환이 작중 인물의 '자연화된' 인식적 전제로 맥락화됨에 따라, 귀환하지 못한 이주와 이산의 과정을 '불행한 경험', 또는 '미완의 삶'으로 위치시키는 감성구조와 상상력을 해명한다. 이때 귀환을 '자연화'하는 작중 인물의 인식과 정서적 경험 및 반응, 주변인의 감성과 사회적 상상력을 분석하고, 그것이 독자에게 환기하는 세계관의 작용을 재성찰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 이산이 비자발적이고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산의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조명하는 관점이 야기하는 문제와 파장, 그것이 전승되면서 '신화화'되는 맥

8) '신화화'와 '자연화'는 모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용어다. 신화는 의사소통의 체계이자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통해 대상이나 개념이 아닌 의미 작용의 형식 자체가 된다. 자신 안에서 일종의 편재성을 생산하는 신화는 사람들에게 의해 기호학적인 체계가 아니라 귀납적인 체계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자연화된다. 자연화는 기호학적 체계를 사실적 체계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롤랑 바르트, 『신화론』, 정현 옮김, 현대미학사, 1995.

락을 조선후기 서사적 상상력의 구현 방식을 통해 해명한다.

넷째, 이산의 주체가 이주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변용, 위장, 조정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이주와 이산의 경험이 이주자의 활동과 정체성 ‘수행’⁹⁾에 미친 자아 인식과 자기 구성의 실재를 해명한다. 이때 낮은 장소, 문화, 환경,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아의 위축, 유예, 위장, 조정이 발생하고 자아가 재구성되는 과정(장기적 은폐, 위장과 경험 자산화 과정 등), 이로 인해 야기된 삶의 문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주 주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인문적 재성찰을 시도할 것이다.

다섯째, 이동/이주 주체가 타자와 맺는 관계 사유의 차원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이동/이주의 경험과 이산의 현실이 주체와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이산의 과정에서 만난 외국인, 이웃, 적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분석의 성과¹⁰⁾를 참조하되, 이주의 양상과 계기,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난 만큼, 독자의 관점에서 타자에 대한 다층적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역사, 문화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상상력에 관해 제안해 볼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자의 경험이 서사의 전면에 재현된 것

9) 정체성 ‘수행’이라는 용어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수행성’의 의미로부터 차용했다.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때의 ‘행위’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내면에서 작용하는 감성적 움직임, 정동적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0) 진재교, 『월경(越境)과 서사(敘事):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記憶)-『최척진(崔陟傳)』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연구』 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김정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진>, <김영철전』, 『고전문학연구』 43호, 한국고전문학회, 2013 등.

도 있지만, 유동하는 자의 불안, 공포, 억압적이고 타자에 의존적인 상황에 따라 말해지지 않은 것, 말하지 못한 감정,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 의견 등도 존재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텍스트 분석의 과정에서는 ‘묵음 처리된’ 비문자-감성의 차원을 주요하게 다룰 것이다.

2. ‘이주/이산’의 ‘조건/맥락’과 동력, 사회적 상상

〈최척전〉의 등장인물이 경험하는 이주/이산의 계기와 과정, 그 과정에서 이들이 만나서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해 논하기 위해, 서사에 전제된 세계의 조건, 주체의 정체성 수행과 재구성 문제, 이들에 대한 타자적 시선과 관계 맺기에 주목한다. 이때, 세계, 주체, 관계의 상호 관련성을 각 절의 주요 논의 과정에서 연계하여 분석한다.

2-1. 세계: ‘세계-조건/맥락’으로서의 ‘이주/이산’과 ‘가족제도’

〈최척전〉에서 작중 인물이 경험하는 이산의 계기는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 전란이라는 국가 단위의 위기 상황(중국에 대한 ‘오랑캐’의 침입을 포함), 둘째, 상행위를 위해 지역간, 국가간 이동을 하는 생계 유형, 셋째,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자발적 유형이다. 첫 번째부터 뒤로 갈수록 강제성은 약해지고 자율성은 높아진다. 공교롭게도 주인공 최척과 옥영은 세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옥영의 귀환 여정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자유의지로 이동하는 사례는 없다. 자발적인 선택의 형식을 취한 경우일지라도, 여기에는 자신의 생계를 도와준 지인에 대한 도리와 정리, 아버지의 명령과 권유라는 인정과 위계의 문제가 개입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역학은 ‘사회적/제도적’ 인간을 조건 짓는 당대적 이해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최척전〉의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조건이자 ‘세계’의 맥락으로 설계된 이주와 이산의 계기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주/이산의 계기가 되는 전란이다. 옥영의 경우, 피난에 따른 국내 이동(서울-강화도-회진-성남; 남원-지리산 연곡사)의 행로, 전란에 가족과 헤어져 일본인에게 붙들려 돈우(頓于)와 동행한 국가 간 이주 여정이 해당한다. 최척의 경우, 의병에 뽑혀 혼례도 미루고 진중에 간 사례, 왜구의 침략으로 지리산 연곡사로 피난 간 사례가 있다. 그 밖에 최척과 사돈이 되는 중국인 진위경이 조선에 원정 차 조선에 온 경우다. 그는 나중에 상관의 뜻을 어기고 군법에 저촉될 것을 두려워해 도주한다. 이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연동된 경우다.

서사 내부에서 전란은 개인의 거주지와 삶을 양식을 변화시키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남성 인물은 병사로 강제 동원되어 비자발적 이동을 하며, 여성 인물은 피난을 계기로 가족과 헤어진다. 모두 불행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전란은 가족 이산과 의지적 삶을 단절시키는 부정성을 띠지만, 역으로 개인의 생존력과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고 온축하는 계기가 된다(전란이라는 위기 상황을 통해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생존력을 강화하는 과정은 2-2절에서 논한다).

둘째, 상행위를 위해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을 하는 생계 유형이다. 전란에 옥영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간 일본인 돈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낭고사(浪沽射)에서 늙은 아내와 어린 딸과 살고 있었다. 장사하러 갈 때는 남장한 옥영과 동행해서 부엌일을 맡겼다. 생업을 위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유동하는 여정’이며, 그에게 ‘친절하게 통제되는’ 옥영의 정체성은 자발적/강제적으로 압류되어 있다. 어떤 형식

이든 ‘유동하는 이주의 여정’ 자체가 삶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상정된다.

셋째,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자발적 유형이다. 이는 다시 ‘유람자’, ‘도망자’, ‘귀환인’의 세 부류로 나뉜다.

유람자¹¹⁾ 유형에는 오충병(명나라 군영)에 속해 있지만, 절강 소흥부에 거처(집)를 두고 유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군 여유문, 여유문의 사망 후에 최척이 의지하는 중국인 주우, 이들(여유문, 주우)과 동행하던 시기의 최척이 해당된다. 중국 장수 여유문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가정에 연연하지 않아 유람에 뜻을 둔 인물로, 최척에게 동행을 제안한다.¹²⁾ 여유문이 사망한 뒤에도 최척은 명승지를 유람하며 지냈고, 해상에서 선술을 단련하는 섬도사(蟾道士)를 찾아가려고 마음먹을 정도로 그 삶에 이끌려 있었다. 도가적 삶을 택하려는 최척을 만류한 주우는 ‘강호를 떠돌며 즐기는 달인의 삶(浪跡江湖, 以娛餘年, 不亦達人之一致.)’을 제안한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여행생활자,¹³⁾ 또는 세계 여행자다. 유람자의 극단화된 형태가 도가적 인물로 상정된 바와 같이, 여행하는 삶은 제도적 삶의 규율에 대한 일탈과 거부를 함축한다.

도망자 유형에는 석주의 토병으로 있다가 목사의 학정을 견디지 못해

11) 이 명칭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 조건을 갖춘 여유문이 ‘집안일에 연연하지 않고 장차 멀리 유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余既無家室之戀, 而又有遠遊之計)’고 자신을 소개한 것을 근거로 삼은 명명이다. ‘유람’은 인생에 대해 단지 ‘생존’이 아니라 ‘향유의 의지를 담은 자율적 선택’이기에, 강제적 ‘추방’이나 강요된 ‘이산’과는 다른 의미 맥락을 함축한다. ‘강호를 떠돌며 즐기는 달인의 삶’이란 선술에 탐닉하려는 최척을 만류한 주우가 제안한 것으로, ‘쾌락’에 대한 추구를 포함한다.

12)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유람한 내역은 서술되지 않았으며, 최척은 당 소흥부에서 군부의 일을 맡게 된다. 실제로는 유람의 요소가 여유문이 최척을 동반자로 삼는 계기로 서만 작용한 셈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2·3절에서 상론한다.

13) ‘여행생활자’는 여행을 생업으로 하는 삶을 의미하는 여행가 유성용의 용어에서 차용했다. 유성용, 『여행생활자』, 사흘, 2007. 이들이 하는 상행위는 생계 그 자체를 위해 서라기보다는 여행비를 벌기 위한 일종의 도구적 방편이다. 최척과 주우는 떠돌아다니며 차를 파는 ‘해상 여행생활자’의 삶을 살다가 안남 바다에서 옥영과 만난다.

가족과 함께 오랑캐 땅으로 이주해 20년을 살면서 조선 포로를 감독하던 늙은 오랑캐(老胡.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는 최척과 몽석의 사연을 듣고 그들을 탈출시킨다), 중국 군영에서 조선에 왔다가 도망친 진위경, 포로로서 탈출하는 최척과 몽석이 있다. 최척 부자는 고향을 찾아가는 귀환자이지만,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망자이기도 하다.

오랑캐 땅의 포로수용소에 갇힌 최척 부자는 처음에는 탈출할 생각이 없었다(적어도 서사의 표면에 탈출 의사가 표시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연을 알게 된 늙은 오랑캐의 권유와 도움으로 고국으로 생활한다. 자발적 도주자였던 ‘늙은 오랑캐’는 이들과 유사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통 받는 포로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주었다. 자신의 경험을 이타적, 승화적으로 사회화한 것이다. 최척 부자가 포로에서 도망자이자 귀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귀환인 유형에는 아들(몽석), 며느리(홍도)와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옥영이 있다. 옥영이 귀환을 결심한 계기는 남편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아들의 말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옥영과 최척은 애정이 돈독했을 뿐더러, ‘지기(知己)’의 관계였다. 젊은 시절의 옥영은 최척을 직접 보고 배우자로 택했으며, 혼인의 위기를 겪자 자살기도한 바 있다. 최척과는 음악과 시로 소통하는 소울메이트였으며, 이를 계기로 해상에서 극적으로 해후한다(최척의 피리소리에 화답한 옥영의 조선어 시). 남편의 생존가능성을 믿고 돌연 귀환 의사를 밝혔던 것은 이러한 개인사에 기인한다.

홍도는 조선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조선행 항로가 위험하다는 남편(몽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조선에 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켰다.¹⁴⁾

14) 조선에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조선행을 단행하는 ‘홍

남녀 주인공은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보조인물이 모두 ‘이주/이산’의 경험자라는 것은 ‘이주’와 ‘이산’이 〈최척전〉에 설계된 ‘세계-조건’임을 시사한다. 〈최척전〉에 부모가 모두 생존하며 자녀들과 한 집에 동거하는, 이른바 ‘정상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세계-조건’과 연계된다. 〈최척전〉의 서사는 일정한 가족형태가 안정적으로 존속될 경우에는 서술 시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배제되었다.¹⁵⁾

〈최척전〉의 등장인물에게 일상화된 가족 형태는 불완전하다. 최척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옥영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장자 몽석은 부모 없이 조부와 외조모의 손에서 성장했다.¹⁶⁾ 사돈끼리 (외)손자와 동



도의 행동에는 현재까지도 살아 있는 동아시아의 인륜성 (humanity)에 대한 감각이 투영되어 있다. 중국 한나라 대에 조아(曹娥)가 물에 빠진 부친의 시신을 찾기 위해 물가를 따라 열이레 동안 울며 다니다가 물에 뛰어들어 부친의 시신을 안고 죽은 고사가 『이십사효(二十四孝爻)』에 수록되었으며, 이는 조선 세종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의 〈효행편〉 「효아포시(孝娥抱屍: 효아가 시신을 끌어안다)」(8화)에 실려 있다. 성종 18년(1487)에 제주도에 추쇄경차관으로 부임한 최부(崔溥)가 풍랑에 휩쓸리면서 도 서울로 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부친의 상례를 치르기 위

해서다(그 기록이 〈표해록(漂海錄)〉으로 남아 전한다). 동아시아에서 망자의 시신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인륜성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 15) 예컨대, 최척과 옥영 중국에서 재회하여 아들 몽석을 낳고 살아온 24년의 세월은 단 한 줄로 표기될 뿐, ‘이야기를 갖지 않는다. “다행히 늙어서 의탁할 아들까지 얻어 함께 지금까지 24년간 즐겁게 살아왔습니다(得托後之兒, 合歡同居, 二紀于茲.)”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6쪽.
- 16) 김문희가 주요한 분석의 코드로 택한 ‘결핍’은 가족서사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와도 일치하고 있다. 김문희, 『〈최척전〉의 가족지향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김문희가 결핍의 충족을 지향하는 것을 서사의 동력으로 분석했다면, 이 글에서는 〈최척전〉에서는 결핍된 삶이 조선,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인의 삶의 ‘보편성’으로 전면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해석학적 전환’을 시도했다는 차이가 있다. 결핍의 충족을 지향했다는 판단은 타당하지만, 결핍이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것이고, 귀환이 그 종착점도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거나 상실한

거하는 이례적인 가족 형태인 것이다. 몽선(최척 부부의 둘째 아들)은 형과 조부의 생사를 모른 채 부모와 중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중국 군대에 들어가자, 홀어머니와 살아간다. 홍도(몽선의 처)는 어릴 적 아버지(진위경)와 헤어져 이모와 살았다. 최척의 후견인 격인 여유문은 집안에 연연하지 않고 유람하는 인물로 여동생이 하나 있을 뿐, 다른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는다. 최척의 오랜 지인인 학천 주우 또한 상업차 강호를 유람하는 자유분방한 인물로, 다른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작품에 등장하는 중국인과 일본인 가족도 온전한 형태를 이룬 경우는 없다. 가족 형태의 불완전성은 <최척전> 전체를 지배하는 서사적 현실이다(역설적으로 불완전한 가족 형태야말로 보편적이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최척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불안정한 삶의 형태와 상동적이다. 여기에는 끊임없이 부유하며 표류하는 주체가 등장한다. 이들의 이동은 자발적이기도 하고 강제적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역, 국경, 파고를 넘는 다양한 종류의 ‘유랑’과 ‘표류’, ‘이산’과 ‘불완전한 정주’를 반복한다. <최척전>에 대한 연구 논문의 상당수가 인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거나 실제의 지리적 경로를 탐구하고 있는 것¹⁷⁾은 이러한 서사적 현실에 기인해 있다.

<최척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부유, 표박, 이산, 이주의 정황은 단지

현재적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가족주의, 가부장제가 지배적이었던 <최척전>이 오히려 불완전한 가족 구성원, 이산/이주의 삶을 전면화했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성찰할 수 있는 내재적 장치를 갖추고 공감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17) 소재영, 『奇遇錄과 被虜文學』, 『임병양탄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276-280쪽; 권혁래, 『<최척전> 소주, 항주 공간의 문학지리와 스토리텔링』,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등.

‘조선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명나라 한족과 오랑캐로 불리는 호족), 일본을 망라해 있다. 이들의 행로는 출렁이는 물결처럼 유동적이며, 때로는 그들이 정박한 대지조차 표류하는 듯 이동하고 있다. 〈최척전〉의 서사 전반에 등장하는 다수의 인물군상이 표류하며 이동하는 ‘이산’ 주체인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조건과 상황은 자연스럽게 ‘이주자’의 정체성과 관계, 경험과 지향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내게 된다.

2-2. 주체: ‘이주 주체’의 정체성 수행과 자기-변형(위축/유예/위장/조정)

〈최척전〉에서 이주하는 주체의 정체성은 정주할 때의 모습과 차이를 갖는 것으로 그려진다. 가장 큰 특징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기표현을 할 수 없으며, 안전과 생존을 위해 외모, 성별, 능력, 성격, 국적, 언어 등의 요소에 대한 자기 은닉과 위장의 과정이 매개된다는 점이다. 정체성의 변용과 재구성의 양상이 전면화되거나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인물의 불안을 동반하고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정체성의 위장이나 유예, 조정의 과정에서 인물의 자기 변형에 대한 인식과 내면이 ‘묵음 처리된 채 서사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최척전〉에 재현된 이산 주체의 정체성 변용(위축/유예/위장)과 조정(재구성)에 주목함으로써, 이주라는 조건과 상황이 주체의 ‘정체성’ 형성과 재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언어적’ 감성(기색, 기미, 분위기, 감정, 신체 기호 등을 포함)이라는 개념으로 고찰하고, 이를 ‘이주 주체’의 ‘정체성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사유해 보고자 한다. ‘비/언어적 감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주자의 정체성이 변용되거나 위축되고 위기를 겪는 상황이 낯선 지역과 환경 속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일종의 생존

의 전략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거나’ ‘말하지 못하는’ 억압적이고 부자유하며 경직된 주체의 위기 경험과 연동되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요건은 자연스럽게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¹⁹⁾ 낯선 곳에서의 생존을 위해 국적, 신분, 젠더, 언어(母國語)를 드러낼 수 없는 주체의 상황은 정체성의 형성이나 표현, 소통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노정하기 때문이다. 작중 인물의 명시적 언어나 공표된 태도, 서사에 재현된 서술 층위 이면에 내재된 감성 기호에 주목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당사자에게 발생한 정체성의 은폐와 위장의 문제다. 최척과 옥영이 표박하는 동안 이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옥영이 남장을 하고 여자임을 숨긴 것, 둘째 옥영이 이들 내외(몽선과 홍도)와 귀환하는 과정에서 국적을(일본인/중국인으로) 위장한 것, 포로로 잡힌 최척과 몽석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수 개월간 정체를 숨긴 것 등이 그 예다. 정체성의 은닉과 위장의 이유는 ‘생존’이다. 선택된 위장 요소는 성별(옥영)과 국적(최척, 옥영, 몽선, 홍도)이지만, 개인의 취향, 역사, 가족관계 등 사생활과 개인사, 내면과 감정, 생각, 심리를 망라해 있다.

옥영이 남장을 한 계기는 피난길에 최척(남편)의 권고를 통해서다. 여

18)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주자의 정체성과 문화에서 분절성(fragmentation), 혼종성(hybridity), 이중 의식(double consciousness) 등이 언급되었으나(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 최영석 옮김, 엘피, 2016, 27쪽), 정체성의 변형과 은폐, 위장, 무의식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최척전〉을 통해 이에 대해 고찰할 시사점을 제안하자 한다.

19) 가야트리 스피박 외, 『서말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 옮김, 그린비, 2013.

성성을 철저히 은폐한 이유는 ‘사회적 생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역으로 전란이라는 상황은 사회적 생존이 곧 생물학적 생존과 등치적이며, 젠더 차이가 있음을 명시한다(상처받은 여성의 성은 생물학적, 사회적 삶을 좌절시킨다). 살아남기 위해 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여성 인물에게 허용하지 않은 서사적 상상력이 작중 인물인 최척의 사회적 상상력과 일치했다.²⁰⁾

둘째, 작중 인물이 정체성 위장과 은폐를 통해 역설적으로 ‘진정성’의 내역이 드러났다. 옥영이 남장하는 동안 숨기려고 조심한 것은 ‘여성성’이며, 옥영 일행이 숨기려 한 것은 ‘조선인’의 흔적이다. 드러난 것과 숨긴 것의 차이는 명백하며, 그것의 성공적인 조율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체성 운용의 운용이 생사를 기능하는 사회생활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매개된다. 진정한 자신은 숨겨졌기 때문에 서사나 서술의 표면에 재현되지 않았다. 그것은 온전히 독자의 상상력과 사유 작용으로 위임되었다.

셋째, 작중에서 정체성은 ‘숨겨질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으며, ‘숨기는 자’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남장한 옥영에 대해 텍스트 내부에서는 ‘사람들마다 옥영이 여자인 줄을 몰랐다’²¹⁾는 변장의 성공에 대해 서술할 뿐, 성정체성을 ‘위장/은폐’한 채 살아가는 옥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²²⁾

20) 역설적으로 옥영이 귀환의 험로에서 생존을 위해 활약한 것은 아들, 며느리를 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었을 때로, 성적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회적 상상력’이 작동한 지점이다.

21) ‘최척은 옥영에게 남자옷을 입게 했는데, 무리 속에 섞여도 사람들이 보고 알아차리지 못했다(陟令玉英着男服, 雜於衆人, 見之者, 亦不卞也.)’ (312); ‘그러나 여자라는 건 알지 못했다(而不知爲女子也.)’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4쪽.

22) 이는 남장한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조선시대의 국문표기 여성 영웅소설에도 해당되

- 돈우는 옥영의 영리한 면을 사랑했다. 옥영이 붙들린 채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서 그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여자라는 건 알지 못했다.²³⁾
- “저는 다만 어린 사내로 약질에 병도 많습니다. 전에 본국에 있을 때에도 남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바느질과 취사만 했습니다.”²⁴⁾
- 돈우는 더욱 가없이 여겨 옥영에게 사우(沙于)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배 타고 장사하러 갈 때마다 옥영을 데려가서 부엌일을 맡겼다.²⁵⁾

위와 같이 <최척전>에서는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을 ‘남장’ 행위로 가릴 수 있다는 상상력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나 의심도 드러내지 않았다. 옥영이 왜병 돈우에게 잡혔을 때, 두세 차례 자살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영이 여자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서술되었다.²⁶⁾ 서사를 통해 성이 철저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다뤄졌으며, 쉽게 위장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 것이다.

넷째, 옥영은 젠더 정체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자기를 한정시켰고, 이는 이주의 현장에서 현지인과 상호 교섭할 수 있는 방식의 유예 또는

는 부분이다. 여성의 영웅적인 면모와 남성을 능가하는 ‘성취만 강조되었을 뿐, ‘위장하는 삶’의 곤고함, 어려움, 절대로 위장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표현되지 않았다.

23) ‘頓于愛玉英之穎悟。惟恐見逋，衣以華服，食以美食，慰安其心。而不知其爲女子也.’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4쪽.

24) “我只小男子，弱質多病，昔在本國，不能勝男子之役，惟以裁縫飲食爲業耳。”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4쪽.

25) ‘頓于又憐之，名曰沙于。每乘舡行販，任以火場.’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4쪽.

26) 현대의 TV 드라마에서도 남장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커피 프린스 1호점) MBC, 2007; <바람의 화원> SBS, 2008; <성균관 스캔들> KBS2, 2010; <구름이 그린 달빛> KBS2, 2016 등).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여성 인물이 ‘남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그와 연애 감정에 빠져 혼란을 겪으며, 성정체성이 밝혀지는 순간이 ‘떳떳하고 행복한’ ‘로맨스’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최척전>과의 경우와는 상이하다. 그러나 여성 인물의 정체성의 핵심을 외모와 육체성, 남성이 심리적·상적 호감을 느끼는 ‘섹슈얼리티’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포기로 실현되었으며, 역설적으로 그를 통해 생존했다.²⁷⁾

옥영은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의 흉내를 내고 여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생존권을 확보했다. 옥영이 돈우와 동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협이 되지 않는 남성', '남성에 도달하지 못한 남성'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옥영은 '여성의 역할'을 '대리수행'했다. 섹슈얼리티를 포기하고 젠더를 차용하는 방식을 '생존 전략'으로 택한 옥영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생존을 위한 이산 주체의 '위치성'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미 '역사화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위협이 되지 않는 남성', '남성에 미치지 못한 남성' 그러나 '여성의 역할을 대리수행하는 남성'만이 낯선 장소와 사람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주자의 위치성'을 대변하며, 그러한 인식이 조선후기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옥영은 지나온 삶을 통해 쌓아올린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남성적인 것'으로 소개함으로써 살아남았다. 여성임을 감추었지만, 여

27) Pnina Werbner & Mattia Fumanti는 19세기 서유럽으로 추방된 필리핀인 집단, 런던과 뉴욕의 가나인(Black American), 이스라엘 이주자(South Asian and Bene Yisrael)이 구술, 사물, 음식, 의상, 음악, 춤,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감각적 참여의 방식으로 초국가적 실천을 한 사례에 주목한 바 있다. Pnina Werbner & Mattia Fumanti, "The Aesthetics of Diaspora: Ownership and Appropriation", *Ethnos*, Vol.78, No.2, 2013. 이는 이주자로서 거리 축제, 카니발 등을 통해 집단적, 공개적 형태로 자신의 문화 경험과 감각 경험을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 생산성을 풍부하게 한 사례에 속한다. 토착어, 압축적이고 복합적인 감각, 혼종성과 양가성 등도 디아스포라 미학의 감각적 범주 안에 포함된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옥영과 같이 자기 정체성을 은폐 또는 은닉하며 현지의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으며, 이주지에서 현장의 문화를 보조하거나 재생산하는 역할에만 한정하게 된다. 실제로 <최척전>에서는 옥영이 선상에서 만든 음식이 조선식인지, 일본식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정황상 조선 음식을 만들어 조선 문화를 전파했다고 독해하기는 어렵다(그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상할 여지조차 없이 일본인의 역할을 '보조'했다고 한정되기 때문이다. 옥영은 돈우로부터 일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성적이라고 간주되는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생존했다(옥영이 돈을 위해 지어준 밥은 남성의 작업이기에 안전하게 건네졌고 옥영은 ‘정절의 훼손 없이’ 또는 ‘무사히’ 생존할 수 있었다). 스스로 은폐하고 감춘 힘이 실질적인 생명의 동력이 되었다

옥영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돈우(頓于)에게 ‘베짱이’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로 하여금 ‘더욱 동정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옥영은 돈우에게 동정과 자선, 원조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보존했고, ‘부엌일’을 하는 ‘여성의 역할’을 ‘대리-수행’하는 방식으로 돈우와 공생했다. 돈우로부터 ‘사우(沙于)’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그에게 옥영의 삶을 대리-규정/지배하는 상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옥영의 생존 전략은 이산 주체의 보편적 생존 동력으로 환치하여 이해할 수 있다.²⁸⁾

넷째, 옥영 일행의 경우, 생존을 위해 언어와 의상 차원의 ‘동화 전략’을 구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이들은 조선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중국인 배를 만나면 중국인 행세를 했고, 일본 배를 만나면 일본 옷을 입고 일본어로 대화했다. 이는 오랜 이주 경험을 했던 옥영이 ‘준비한 전략’이었고, ‘성공 전략’이었다. 심지어 일본인은 옥영 일생의 고생에 깊이 공감하며 항로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옥영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28) 우에노 치즈코(上野 千鶴子)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에서 여성 혐오를 여성을 배제한 남성들 사이의 평화로운 연대에 관해 서술한 바 있다. 일본인 돈우와의 공생을 위해 선택한 옥영의 ‘사회적 생존 전략’이 우에노 치즈코의 남성 연대의 문화적 핵심 구조와 일치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9) 이주지의 언어 습득을 통한 ‘동화 전략’은 ‘동질화’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언어 습득은 현지인과 소통하는 테크네의 습득이며, 현지를 ‘배우고’ ‘친화’하려는 의지의 사회화된 형태이자 표현이다. 언어 습득을 통한 동화 전략은 일종의 사회화 기술의 습득이며,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요청되는 사항일 뿐, 그 자체로 ‘동질화’에 대한 지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로 대화하는 문화적 친연성이 적대감을 배제하고 연대감을 형성했으며, 친화적인 동료를 구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체득하고 있었다.

다섯째, 동화의 전략이 단지 옥영, 몽선, 홍도에게서만 채택된 것은 아니다. 최척이 당나라 장수 여유문의 ‘유람하는 삶’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생존을 유지한 것 또한 다른 형태의 ‘동화 전략’에 해당한다. 최척은 일생을 통해 ‘유연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는 자신의 특정한 삶을 고집하지 않는 태도, 타인의 삶에 대한 유연한 동화의 태도와 연계된다.

우선, 최척은 가족이 ‘죽었다/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귀환 의지를 펼칠 수 없었고, 다른 나라로 가려는 이주(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중국 이민)를 결심했다.³⁰⁾ 그는 홀로 남아 주체적으로 살아갈 의지를 상실했을 때, 주변인의 삶의 방식에 동화하는 방식으로 생존의 방향을 결정했다. 여유문이 사망하자 주유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의 동행자가 된 것 또한 최척이 택한 ‘동화의 방식’이다. 옥영의 ‘자기 결정적 삶’에 비한다면 주체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생존에 유리했음은 분명하다.

최척의 유연성은 애초의 성격과 기질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지만,³¹⁾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에서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지인과 주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절박함이 매개된 선택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화’를 선택하는 데에는 성격과 기질 등 개인적 요건과 위기라는 상황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했다.

낮선 곳에서의 유연한 적응력과 생애 의제에 대한 탄력적 조정은 최

30) ‘제 한 몸 의탁할 데 없었으니, 같이 중국에 가서 목숨이나 부지해볼까 한다고 하소연했다(且訴一身之無托, 欲與同入天朝, 以爲支保之計)’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3쪽.

31) 작품의 초입에 제시된 최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최척은 어려서부터 자유로웠고, 친구와 사귀는 것을 좋아했으며, 소소한 일에 끈질기게 집착하거나 속박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自少徇尙, 喜交遊事, 然諾不拘齷齪小節)’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07쪽.

척이 수행한 생존의 방편이다. 이는 옥영이 택한 ‘위장’의 방식이 갖는 긴장감과 다른 여유로운 방식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최척이 행한 유일한 ‘정체성 위장’은 친자인 몽석과 같이 포로로 잡혔을 때였다. 이는 정체성 위장이 주체의 위기의식과 주변으로부터의 압력이 고도에 이를 때 선택되는 극단의 조처임을 시사한다. 최척의 유연한 동화 방식과 옥영의 위장은 결국 성격이나 기질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이주의 과정에서 남녀가 느끼는 위기와 압박의 강도 차이를 대변하는 ‘젠더 차이’였던 것이다. 여성(옥영)은 ‘언제나’ 정체성을 위장해야 할 정도로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지만, 남성(최척)은 정체를 들키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정체성을 위장했다.

여섯째, 이를 통해 볼 때, ‘자기 없는 삶’으로서의 정체성 위장이 당사자의 생존을 보전했다는 역설적 맥락이 환기된다. 옥영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를 위장했으며, 최척은 타인의 삶의 방식에 포섭되어 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존을 담보했다. 그 과정에서 본래의 자기는 ‘유예’되거나 ‘변용’되었다.

‘자기 없는 삶’(옥영), ‘유동하며 동화하는 삶’(최척)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은 상징적이다. 진정한 자기로는 생명이 부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이주자’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를 떠난 이주자의 삶의 현실에 대한 역사화란 상상의 지형을 드러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적 삶의 조건에 노출된 인간 보편의 사회생활 전략을 은유한다는 해석학적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2-3. 시선: 유동하는 관계, 타자의 힘

이주/이산이라는 관점을 매개로 <최척전>의 서사를 살펴볼 때 주목할 것은 이주자/이산 주체의 사회적 관계 맺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포로-감시자’(최척/몽석-오랑캐), ‘보호자-피보호자’ 또는 ‘고용인-피고용인’(옥영-돈우), ‘불평등한 동반자’(최척-여유문/주우) 관계가 형성될 때, 이주 주체의 역량은 위축되고, 관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주자가 낯선 지역에서, 또는 이동의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주자의 물리적 위치의 이동성만큼이나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자가 타자와 맺는 관계는 변화를 수반하기에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희망적이고 전복적이기도 하다.

우선, 최척의 경우를 보자. 최척이 진중에서 여유문과 맺은 관계는 유동적이었다. 피난길에 가족을 잃은 최척은 당(唐) 장수 여유문에게 의탁할 의사를 전했다. 그는 최척의 사연을 듣고 슬퍼했으며, 불쌍히 여겨 유람을 제안했다. 애초에 여유문은 최척에게 ‘집안에 연연하지 않고 장차 멀리 유람할 계획’을 토로하며 동행을 제안했지만, 최척이 여유문과 유람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유람하는 삶’은 여유문이나 최척에게 모두 일종의 ‘이상’이었을 뿐이다. 여유문은 최척에게 약속한 삶을 안내할 수 없었으며, 그조차 이를 만끽할 수 없었다.

최척은 당나라 진중에 들어가 군인으로서 여유문을 보필하고 수행하며 소흥부에 안착했다. 여유문과 최척은 동반자였지만, 군영 내에서 상하관계를 유지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의 관계도 변모한다. 여유문은 최척과 의형제를 맺었으며, 누이

와의 혼사를 제안했다. 최척은 이를 거절함으로써 관계의 거리를 조율한다.

최척이 혼사를 거절한 이유는 ‘아버지와 처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에 상복을 벗을 수 없으며, 마음 놓고 아내를 얻어 편한 생활을 피할 수 없다(我全家陷賊, 老父弱妻, 至今不知死生, 終未得發喪服衰, 豈可晏然婚娶, 以爲自逸之計乎.)’는 것이었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주자’로서 최척의 삶은 ‘상주(喪主)’의 삶과 같다. 상례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는 영원한 상주다. 바꾸어 말하면, 상례를 치르는 인륜성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척은 잠정적인 ‘비-인간’이고, 이것이 바로 이주자/이산자의 스스로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이는 최척이 스스로에게 ‘편안한 삶’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유람하는 자’를 자처했어도, 실제의 삶은 억압적이었고 불안했으며, 상실감으로 가득했음을 시사한다.

최척은 중국 이주자였고, 그곳에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했지만, 원래적 귀속처에 대한 소속감(고국, 고향, 가족)을 저버리지 않았다. 겉으로 ‘동화하는 삶’을 추구했던 최척이 ‘혈연 가족’에 대한 강한 귀속감을 내면에 간직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주자의 ‘완전한’ 현지 동화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환기한다. ‘동화’란 ‘사회적인 것’이며, ‘보여진 것’이고 ‘표명된 것’이었을 뿐 내면에는 혈연적, 원래적인 것, 고향, 가족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 존재했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서 ‘인간다움’(인륜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주자의 인문성, 인륜성에 대한 사유와 문화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주자를 중심으로 한 ‘정상 가족(완전한 가족 형태)’을 기준으로 생성된 인륜성의 의미에 의존할 수밖에

32) 상례와 망자의 시신을 둘러싼 동아시아 공통의 인륜성의 감각에 대해서는 이 글의 22쪽 각주 14)번을 참조.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척이 여유문에게 의탁한 동안에도 삶은 물결처럼 흘러가며 움직였다. 이들은 동료이자 상하관계였으며, 의사(擬似)가족이었고 ‘감시자/보호자-억류된 자’였다.³³⁾ 관계는 유동적이지만, 최척이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방식은 ‘상주의 삶이라는 상실의 감각에 있었다. 이는 최척을 좌절시키고 기운을 빼앗는(disempowering) 정서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삶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는 감성적 축이 되었다. 동시에 스스로 인간됨을 확인하는 인륜성의 보루였다. 가족을 잃은 자로서의 처신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는 가족과 정당하게 해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옥영의 관계 맺기에서 주목할 인물은 일본인 돈우다. 처음에 옥영은 돈우에게 붙잡힌 포로였지만, 그의 집에서 동거하는 의사(擬似)가족으로 지냈으며, 상선을 타고 떠날 때에는 동행하며 일을 돕는 보조자이자 동료의 역할을 했다. 옥영과 돈우의 관계 자체가 유동적이며 다면적이고, 적층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관계의 전제가 옥영의 정체성 ‘위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들의 관계는 평등할 수 없었다.³⁴⁾

33) 원문에는 ‘여공이 그를 아껴서 같은 공간에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잤다(余公愛之, 共牢而食, 同床而寐)’고 서술되었다. 이는 돈우가 옥영을 아껴서 “같이 밥 먹고 지내면서 감시도 떨어지지 않았다(居處飲食, 未嘗暫離)”고 고백한 맥락과 유사하다. 친밀성을 띠지만, 감시와 억압의 뉘앙스를 갖는 ‘다정한 폭력성’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돈우는 옥영이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다른 곳에는 일체 나가지 못하게 했다(使玉英居家內, 不得往他.)’ 인용한 본문은 각각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3, 316, 314쪽. 옥영의 사례에 대해서는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45쪽을 참조.

34) 옥영과 돈우의 관계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경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전〉, 〈김영철전〉』, 『고전문학연구』 43호, 한국고전문학회, 2013, 179쪽을 참조. 진재교는 호혜와 환대를 베푸는 ‘이웃’으로 해석했고, 최기숙은 이면에 잠재된 옥영의 억류된 삶과 부자유에 주목해, 옥영과 돈우

최척과 옥영의 동행 파트너였던 주우와 돈우는 서로 초면이지만, 최척-옥영의 사연을 듣고 경쟁하듯 호의를 베풀었다. 주우가 돈우에게 백금을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가려 한 것, 돈우가 이를 사양하며 도리어 옥영에게 전별금으로 은을 주며 이별을 고한 것이 그 예다.

〈최척전〉은 최척과 옥영의 만남을 통해 단지 이산가족의 기이한 해후를 다룬 것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주변인의 관심과 공감, 배려와 호의가 없었다면 해후 자체가 불가능했다. 해상에서 만났어도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최척과 옥영의 해후에 ‘감동하는’ 타자의 힘에 있었다. 서로가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했고, 그 가치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회복이 가능했다. 돈우는 옥영이 자신에게 여성임을 속였던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았으며, 둘의 만남을 ‘천지신명이 감동’한 일로 해석했고, 자신이 ‘목석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했다.³⁵⁾ 다면적이고 적층성을 띠었던 옥영과 돈우의 관계는 돈우가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고 놓아주는 태도를 통해 ‘호혜적 관계’로 정리되었다.

의 관계를 ‘다정한 폭력’으로 해석한 바 있다. 친절하다는 것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진재교, 『월경(越境)과 서사(敘事):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記憶)-『최척전(崔陟傳)』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연구』 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160쪽;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45쪽 각주 12)번.

35)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되었는데,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해서 친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침식을 함께 해서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여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눈으로 직접 겪게 되니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이군요. 내 비록 어리석고 무디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닙니다. 어찌 차마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에서 은자 열 냇을 꺼내주면서 말했다(“我得此人, 四載于茲, 而愛其端懿, 視同至親, 居處飲食, 未嘗暫離, 而終不知其爲婦人也. 今日目睹此事, 天地神明, 猶此感動. 我雖蠢頑, 固非木石, 何認貨此, 而爲食乎?” 卽於囊中, 出十兩銀子, 賜之曰.)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6쪽.

- 이어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중에 두홍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젊고 용감하고 건장했다. 그가 최척의 소회를 듣더니, 얼굴에 의로운 기색을 드러내고 주먹으로 노를 치며 분연히 일어나 말했다. “내 가서 알아보리다.”³⁶⁾
- 최척과 옥영이 함께 본 배로 돌아오자 이웃 배에서 이들을 보러 오는 이들이 연일 끊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금은과 비단을 주기도 했다. 학천은 집으로 돌아와 별도로 방 하나를 청소해서 부부가 살도록 했다.³⁷⁾

최척과 옥영이 이주자로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은 다층적이며 적층적이고 유동적이다. 상대는 호의를 내세운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언젠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로 변할 수 있으며, 적대적이 될 수 있었다(옥영과 돈우). 친구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했다지만, 실질적인 고용주이자 상관이었다(최척과 여유문). 감시자였지만 탈출을 돕는 구원자였으며,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루도록 돕는 멘토이기도 했다(최척/몽석과 늙은 오랑캐). 신분을 숨기고 도망 다니던 중국인(진위경)은 등장을 앓는 최척을 치료해 주었다. 관계의 유연성과 유동성은 그 자체로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또한 희망적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최척전>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이주자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삶의 어둠과 희망을 동시에 재현했다.

또한 <최척전>은 국경의 안팎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불행을 겪은 타인의 생애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동정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고민과 슬픔에 분연히 일어나 정황을 파악하려는 용기와 의기를 표하려는 이도 있었다.³⁸⁾ 최척의 사연을 들은 배

36) ‘因述全家被虜之事，舟中人莫不悲歎。座中有杜洪者，年少勇壯者也。聞陟所懷，義形於色，以手擊楫(楫의 오자)。奮然起曰：“吾將往探之。”’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5쪽.

37) ‘陟偕玉英歸本舡，隣舡來見者，連日不絕。或以金銀綵繒相贖。鶴川歸家，別掃一室而處焉.’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7쪽.

안의 사람들은 모두 비탄에 젖었으며, 젊고 용맹한 두홍은 의기를 띠고 사태를 알아보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타인의 사연에 공감하며 도움을 자처할 정도로 호의적이며 정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들은 이름이 있거나 없고, 개인이거나 집단이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었다’.

3. ‘이주/이산’의 경험 자산: 공감 능력 · 자기 철학 · 희망 의지

〈최척전〉에 등장하는 이주/이산의 주체는 끊임없이 대지를 표박하고 해상을 부유하는 생애를 보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나 지역민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전쟁은 남성 인물에게 패잔병과 포로의 삶을 허용했고, 타국의 병영에 헌신하도록 종용했다. 여성 인물에게는 여성적 삶 자체를 박탈했으며, 정체성 위장을 감내해야 하는 억류된 삶을 강요했다. 이러한 삶의 내역은 이주하는 주체를 불안과 불행의 관점에서 사유하게 하는 타당한 원인과 맥락을 제공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타자의 동정을 최선의 대우로 상정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주/이산의 경험은 반드시 부정적이며 회피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대상일까.

이 장에서는 〈최척전〉에 등장하는 ‘이주/이산’의 주체가 경험하거나 깨달은 삶의 내용과 방향, 그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의 지형을 성찰하는 것으로 이에 응답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차원을 고려한다: 각

38) 이들의 서사적 기능은 한글 고소설에 등장하는 익명의 집단적 인물군이 수행하는 역할(공감하는 집단,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집단)과 유사하다. 한글 고소설의 집단화된 감성 동력에 대한 분석은 최기숙, 『지속 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 『동방학지』 17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41-48쪽을 참조.

인물이 습득한 이주/이산의 경험 자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가, 보편적인 것으로 상정되었는가. 이주/이산의 경험을 통해 확보한 작중 인물의 세계 인식(세계관)은 무엇인가.

3-1. 경계선 안팎에서 필요한 것: 소통의 테크네와 철학

〈최척전〉의 거의 모든 인물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이주와 이산을 경험한다. 그 결과 인물의 외적 삶과 내면이 분리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들의 자아는 그 때문에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적절히 안팎을 조율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발휘하게 된다. 상대와 평화롭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각자의 방식도 발견한다. 이러한 작중 인물의 경험 세계는 곧 소설 독자가 읽기를 통해 습득하는 지식이자 삶의 경역을 형성한다.

역설적으로 〈최척전〉의 등장인물이 정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규율은 국가나 특정 집단에 얽매어 있지 않다. 그들의 삶은 임시적이고 강제된 것, 억류된 삶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바로 그 때문에 ‘사연을 가진 자’가 된다. 〈최척전〉은 각자의 사연이 타인에게 소통 가능한 것, 공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각자가 비로소 삶의 활로를 얻게 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예컨대, 옥영과 최척이 선상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기이한 사연을 들려주고 공감을 얻음으로써 부부로서 맺어진다. 최척의 입장에서는 그와 동행한 중국인들의, 옥영의 입장에서는 일본 상인들의 동의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의 해후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말하자면 부부간의 해후조차 ‘사회적인 것’이며 ‘국제적인 합의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다.³⁹⁾

또한 <최척전>에 등장하는 ‘부유하는 존재들’은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의 철학과 판단에 따라 처신하고 살아가는 면모를 보였다. 그것은 각자의 생이 허락한 생존 전략인 동시에, 삶을 가치화하는 철학에 속한다.

예컨대, 작품에서 이름조차 부여되지 않은 ‘늙은 오랑캐’를 보자. 그는 삭주의 토병으로 있다가 관리의 학정을 견디지 못해 도주한 자발적 이주자다. 그는 고향에 얽매이기보다는 행복(자유, 정상성)을 찾아 떠난 주체적 이주자다. 그는 도주자의 신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랑캐 땅에서 조선인 포로를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감시자의 임무를 스스로 배반한 계기가 발생했다. 최척과 몽석의 ‘통곡’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로의 눈물에 관심을 가졌다. 경계심이 가득한 최척과 몽석은 그가 비밀을 캐내려는 줄로 오해해서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오랑캐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자기가 먼저 고백했다. 그것은 성공적인 삶에 대한 과시가 아니라, 고통과 공포, 상처로 얼룩진 누더기 삶의 내역이었다. 자기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감시자를 향한 포로의 경계심을 해체한 것이다.

최척 부자의 사연을 들은 그는 탈출하라고 알려주었다. 식량도 마련해 주고 도주로도 알려주었다. 이는 분명 감시자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39) <최척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의사소통의 ‘언어’다. 예컨대, 몽석이 중국인 아내 홍도와 대화할 때 사용한 언어가 무엇인지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주거지가 중국이었고, 홍도가 조선에 오면서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옷을 짓고 매일 아들과 며느리에게 두 나라 말을 가르쳐 익히게 했다(卽裁鮮倭兩國服色, 日教子與婦, 傳習兩國譯語.)’(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21쪽)고 서술된 정황으로 미루어본다면, 그간 옥영-몽선-홍도는 중국어로 소통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행위다. 그는 직업윤리(철저히 포로를 감시해야 한다)와 인간적 윤리(불잡힌 가엾은 가족을 탈출시켜야 한다)가 충돌할 때, 후자를 택함으로써 삶의 곤경과 역설을 통과하는 서사적 해법을 제안했다.

“내가 비록 죄를 얻는다 해도 어찌 차마 보내주지 않을 수 있소?”⁴⁰⁾

오랑캐가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있는 것을 덜어주는’ ‘자선’과는 다르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랑캐 추장의 명을 수행하는 직무적 성실함보다 자신이 공감한 일에 책임지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자신이 해를 입을지라도 ‘도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으며 규율을 어겼다. 자신이 감동받은 그 일을 위해 헌신했다.⁴¹⁾

이러한 태도는 옥영을 도와준 돈우의 발상과도 흡사하다. 그는 옥영을 풀어주면서 말했다.

-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적은 아닙니다. 어찌 차마

40) “我雖得罪，安得忍以不送?”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9쪽.

41) 이러한 과정은 직무에 대한 반성 없는 이행이 불러온 세기의 파국, ‘홀로코스트’에 대한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의 분석(스탠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정태연 옮김, 예코리브르, 2009),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의 해석(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준 옮김, 새물결, 2013), ‘악의 평범성’을 제기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의 성찰성을 환기한다. 영화 <레미제라블>(Les Miserable, 2012. 감독: 톰 후퍼)의 자베르 경감은 제도의 규율을 내면화해서 제도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화된 존재로 등장한다. 그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직무 수행에 충실하며, 상명하달의 체계를 성찰 없이 정당화하는 삶이 어떻게 한 인간의 생애를 철저히 파괴할 수 있으며, 결국 자기 파멸로 이끄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평온은 나의 힘, 영성 수행자에게 듣는다』, 소영현 외, 『감정의 인문학』, 봄아필, 2013, 229-231쪽을 참조.

이 돈으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⁴²⁾

이들의 처신은 국적이나 인종, 지역, 이념적 경계에 강박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충실했고, 공감한 바대로 판단하고 발언하며 실천하는 성찰성을 수행했다. 최척과 몽석을 풀어준 오랑캐는 제도에 강박되지 않은 임시적 체류자였기 때문에, 자기 철학과 판단으로 이들을 놓아주었다. 그는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유의 주권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제도의 원칙이나 명령에 강박되지 않았으며, ‘사연’을 듣고 반응하는 감성적 주체다. 이것을 텍스트는 ‘인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척전>은 이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규율도 사상적 경계도 아닌, 인본주의적 사유이며, 이를 따르는 자기 철학의 수행임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다.

3-2. ‘인륜’이라는 세계-경험과 사회적 영성

<최척전>에서 불안하게 유동하는 이산과 이주 주체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관심과 배려, 보살핌이다. 둘째, 개인의 생애 의지와 소통 의지다. 셋째, 인간의 삶과 생명을 지지하는 세계와 자연, 신의 힘이다. 이는 신앙, 종교, 꿈으로 상징되는 무의식적 생애 의지이기도 하다. 이 세 영역은 서로 연동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이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발상을 사회적 영성⁴³⁾으로

42) “我雖蠶頌，固非木石，何認貨此，而爲食乎?”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 기소설』, 월인, 1999, 316쪽.

43) 사회적 영성이라는 표현은 김진호, 『사회적 영성』(현암사, 2014)에서의 용례와 우치다 타츠루(内田樹)(『하루키씨를 조심하세요』, 김경원 옮김, 바다출판사, 2010)의 생각을 참조했다. 『사회적 영성』의 필자들은 종교적 의미를 담거나 강조하기보다는 내

명명할 수 있다면, 〈최척전〉의 서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체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며 실체화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문학적으로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최척전〉을 통관하는 초자연적 힘은 장육금불의 지속적인 현몽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초월적 힘이나 종교적 맥락이 아니라 사회적 영성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사회(타자)의 이타적 관심, 무매개적 호혜와 개인(주체)의 자기 보존을 향한 본성이 장육금불로 상징되는 사회적 영성의 ‘맥락’이자 ‘전제’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와 타자의 관심과 배려, 보살핌, 개인과 주체의 의지가 없었다면, 장육금불의 현몽은 현실화될 수 없었다. 세 영역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들 간에 우열이나 선후를 가리는 것은 중요치 않다. 이들의 공존이 상호적 역학 관계의 동력이며, 그 역(상호 관계를 통해 공존이 성립된다는 등식) 또한 참이라는 사실이 핵심적 관건이다.

먼저, 첫째 부분을 보자. 〈최척전〉에서는 주체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기쁨을 나눌 때조차 주

면성(interiority), 내재성(immanence), 자기초월적 특성 등을 강조하여 탈종교성을 지향하는 의미망 안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63쪽, 149쪽 등). 이들이 주목하거나 전제로 삼은 사회적 영성의 매개는 말할 수 없는 것, 고통, 배려, 관심, 친밀감, 감정, 공감, 도덕, 기억, 그리고 ‘사회적인 것’ 또는 ‘사회 그 자체’ 등이다. 우치다 타츠루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영성이란 ‘연결되어 있는 감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하루키씨를 조심하세요』, 김경원 옮김, 바다출판사, 2010, 116쪽). 〈최척전〉에서도 연결됨을 지지하는 영적 힘으로 ‘장육금불’이 등장하는데, 부처와의 소통은 최척 부부가 만복사라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발원하는 ‘기도’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란 초월적 존재(신, 부처)에게 내면의 희원을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과 만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내면과 마주쳐야 한다는 내면성, 진정성의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 〈최척전〉은 여기에 이웃, 주변인, 타자의 공감과 지지, 배려와 도움이 내면과 진정을 현실화하는 맥락적 전제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내적의 영혼, 신과 만나는 초월적 영성과 더불어 사회적 영성이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맥락이 자연화되어 있다.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변을 설득하고 해명하며 그들의 공감을 구할 의무가 있다는 발상이 전경화된 것이다. 자기 선택적 삶은 반드시 ‘사회화’되어야 했다.

인물들이 타인(주변인)에게 사연을 들려주는 장면은 주체적/의지적 삶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었다. ‘소통의 테크네’는 사회적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해상의 외국인들(중국인, 일본인)이 최척과 옥영 부부가 만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들의 사연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어선 인륜적 연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부의 행복한 재회가 가능했다. 그 바탕은 유교나 불교, 도교라는 특정 사상이라기보다는 부부애를 존중하는 각자의 삶의 경험적 이해에 근거해 있다.⁴⁴⁾ 말하자면 인륜성에 대한 동아시아적 공감대가 작중 인물의 행복과 지향의 바탕으로 작용했고, 그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서사가 직조되었다.

주변인(타자)의 작중 인물(주체)에 대한 처신은 관심과 배려, 보살핌이다. 가장 평화롭고 화해적인 관심과 배려는 상대의 진면목과 정체, 사연을 알고, 주체가 스스로 바라는 점(욕구와 희망)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체의 자기 토로와 고백이다. 예컨대, 옥영을 남자로 알았던 돈우의 관심과 배려는 위장한 옥영을 향한 것이었기에 완전할 수 없었고, 도리어 다정한 폭력의 의미를 함축했다. 돈우가 옥영을 풀어준 것은 그의 진짜 사연을 들은 이후다. 최척이 아내와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의 사연에 공감한 주변인(동행한 뱃사람들, 주우) 덕분이다. 사연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애사를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소통 의지를 표현했다는 뜻이다. 진실을 털어

44) 물론 그 바탕에 유교나 불교적 맥락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념이나 사상보다 부부, 가족의 삶을 지지하고 기이한 인연에 공감하는 보편적 감성 구조가 주요하게 작동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놓았을 때 위험해진 것이 아니라, 생의 의지를 성취했다.

이와 유사한 과정이 개인의 내면에서도 발생하며, 이는 신성한 힘, 상상적으로는 부처의 현몽과 연결된 것으로 구조화되었다. <최척전>에는 최척과 옥영이 위기에 처하거나 고난의 극점에 이르고 삶의 의지를 상실했을 때,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이 있다. 그 때에 이들을 살려준 것은 자살을 만류하는 주변인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부처의 현몽이다.

*** 자살 기도 후 현몽**

- “삼가 죽지 마라. 나중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⁴⁵⁾
- “기운이 고단하고 몸이 피로해서 잠깐 꿈을 꾸었는데, 홀연히 장육금불이 나타나서 좋은 징조가 있다고 알려주니, 참으로 이상하구나”⁴⁶⁾

장육불이 꿈에서 건넨 ‘삼가 죽지 마라’는 가르침은 곤고한 삶을 살아 가는 이들에 대한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다. 나중에 기쁨이 있으리라는 발언은 부처의 것이기에 신빙성이 있다. 이것을 꿈에서 얻었다는 것은 부처라는 신성의 존재가 주체의 내면의 음성이자, 무의식적 생명 의 지임을 시사한다.

<최척전>에서 옥영이 장육금불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기자치성을 위해 남편과 함께 만복사를 찾았을 때다.⁴⁷⁾ 정성껏 기도해서 자식을 얻는 과정은 국문 고소설의 전형적인 모티프다. 인간의 출생이 생물학적

45) “慎勿死也。後必有喜。”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4: 320쪽.
 46) “氣困身疲, 乍成一夢, 恍惚之間, 丈六金佛, 又告以吉象, 極可異也。”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23쪽.
 47)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정성이 아름다워 훌륭한 아들을 내려주겠다.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我萬福寺之佛也。嘉爾精誠, 錫以奇男。生必有異).”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1쪽); “아들이 태어나면 또한 붉은 사마귀가 있을 것이다(生子亦有赤痣).”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7쪽)

성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과 신성으로부터의 응답이라는 발상은 생명존중 사상과 생태사상을 반영한다.⁴⁸⁾ 부처에게 올린 기자치성은 아들을 낳고 싶다는 간절한 서원이었다. 그 마음은 바깥의 신앙과 종교의 영역이기 이전에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난 절실한 희망에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경험은 생애 전반에서 인물이 삶을 끝내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다. 삶이 이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부처에게 재를 올려 감사를 전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삶에 존엄성을 부여하고 신성하게 정화하는 일상의 의례였다.⁴⁹⁾

이로써 〈최척전〉은 ‘사회-개인-신성(자연/신),’ ‘주체-타자-연대(사회적 형성)’의 상호 관련성과 역학 관계를 공감적 맥락에서 서사화했다. 이것이 이주/이산 주체의 삶의 여정을 통해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대는 이주자의 삶을 지탱하는 세계 경험이자 요청에 대한 상상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귀환의 역설: ‘가족/젠더’ 서사의 탈/신화화

최척과 옥영이 돌아왔을 때 가족 서사의 퍼즐은 완성되었는가. 이주/

48) 이 점에서 〈최척전〉의 기자치성 모티프는 한문전기소설과 국문고소설의 접점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49) ‘부부는 (부처님께) 감사드렸다(夫妻感).’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17쪽): “우리에게 오늘이 있었던 것은 진실로 장육금불께서 은밀히 도우신 은혜 덕분입니다.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최척과 옥영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성대하게 제물을 갖추어 만복사로 가서 정성을 다해 재를 올렸다(吾等之有此日, 實丈六金佛蔭護之恩也. 其可不報恩乎? 乃率二子二婦, 夫妻盛備齋幣, 詣寺致齋, 盡誠健醮).’ 이상구 역주,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24쪽.

이산에서 기인한 삶과 가족 형태의 불완전성은 완전한 목표지점에 도달하였는가.

이주/이동의 경험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달리 이들의 귀환과 정주에 대한 서술은 간략하다. 가족이 눈물어린 해후를 완수한 뒤에 최척은 정현대부에 가자되고, 옥영은 정열부인에 봉해졌으며, 2년 뒤에 두 아들은 무과에 급제했다.⁵⁰⁾ 완전히 제도에 안착한 것이다. 조정으로부터 관리되고 인정받는 백성이 됨으로써, 역경으로 점철된 이들의 과거는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이주/이산이 외부적이고 폭력적 계기로 시작되었고, 비자발적으로 행해졌기에, 암묵적으로 귀환을 당위적이고 자연스러운 귀결로 상정한 데서 연유한다. 최척과 옥영이 해상에서 해후해 살아간 24년간이 단 한 줄로 표현된 것처럼, 온 가족이 상봉하자 이야기는 급격히 마무리되었다. 이야기는 귀환이 어째서 행복한가를 서술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전제로 맥락화되었기 때문에, 설명의 여지가 없었다.

귀환을 통해 종료되는 <최척전>의 서사구조는 역설적으로 이산이 시작되는 순간, 예비되어 있었다. 귀환을 ‘행복한 결말’이자 ‘완성된 삶’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은 이주/이산의 과정을 ‘불행’과 ‘미완의 삶’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시선의 문화정치를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 <최척전>은 이주/이산의 경험에서 획득한 개인과 집단(가족)의 역량을 오직 귀환의 과정에만 전용하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옥영이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전략(위장과 자기조정 능력, 일본과 중국의 옷과 언어를 사용해 위기를 모면하는 전략)과 능력

50) 몽선과 홍도는 조선-중국간 국제결혼을 한 셈인데, 홍도가 아버지와 함께 조선에 정착함으로써 사실상 귀화인이 된 셈이다. 이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날씨를 보고 출항을 결정하는 것, 배를 수리하는 능력 등)은 귀환과 동시에 쓸모를 잃는다. 아들 내외를 진두지휘하고 해상의 외국인, 해적들과 소통하고 협상하며 귀환한 옥영은 이후에는 아들의 효도를 받는 ‘정열부인’으로 살아갈 뿐이다. 이것을 행복과 안정으로 사유하는 한, 옥영의 경험은 생애 자원이 아니라 잊어야 하거나 봉합해야 하는 상처, 쓸모 없는 과거일 뿐이다.

실제로 <최척전>은 이주자가 생존을 위해 위장하고 동화하는 과정을 평온하게 서술함으로써,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숨겨야 하는 존재의 이율배반, 이국과 이민족/외국인에 동화하기 위해 상실의 감각을 축으로 살아온 자기 억압과 욕망의 압류를 묵음처리 했다. 작중 인물은 자기의 압류, 위장, 은폐, 억압이 생존의 조건이자 규율임을 이산의 과정에서 저절로 체득했다. 이러한 인물의 처신은 국경을 넘는 이주자의 문화적 위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불완전한 가족 형태로 서로 의존하며 공생하던 이들이 보여준 연대의 힘은 최척과 옥영 가족의 상봉을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결락하게 된다. 혈연 집단이 다시 모인 형태의 가족이 형성됨으로써, 타자에 대한 공감, 배려, 보살핌의 힘은 주변화되거나 탈색되었다. 그들의 힘은 유리/표박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의존한 잠정적 힘으로 간주되거나, 생활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대야 했던 보조적 장치로 밀려난다.

상봉과 해후를 통해 가족서사가 완결됨으로써, 유랑과 표박, 이주와 이산의 서사는 가족서사를 신화화하는 도구로 위치지어졌다. 이것은 비단 조선후기, 또는 17세기라는 특정 시기나 <최척전>이라는 하나의 텍스트에 국한된 상상이 아니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자본과 상품의 유통만큼이나 빈번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21세기에도 이주/이산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는 <최척전>에 재현된 세계로부터 그다지 크게 진화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주자에 대한 무시와 혐오, 불안과 공포,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선의 현실성은 환대, 관심, 배려, 보살핌을 다루었던 역사적 상상력과 동떨어져 있다. 고전이 현재를 성찰하는 자원이 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17세기 소설 〈최척전〉에 노정된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는 오늘날 사회적, 문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자연화’된 상태로 수용되어, 이주를 둘러싼 신화화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현대 사회는 이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편견이나 모순을 공론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모순 자체를 삶의 ‘전제’로 되돌리는 인식론적 순환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국경을 넘는 이주와 표류의 계기에 대한 역사사회적 맥락성은 상이하지만, 〈최척전〉에는 고전적 차원의 보편적, 본질적, 구체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현대성에 대한 성찰의 사유를 고전으로부터 출발할 필요를 제안하는 것은 현대성의 조건과 문제제기, 이에 대한 사유 자체가 ‘역사화되고 있다는 한국문화사적 맥락성’에 대한 공감대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오히려 뿌리 깊은 인식적 고착과 비판적 성찰을 회피하는 상상력의 공회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상구 역주, 〈崔陟傳〉,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07-324쪽.
郭守正·高月槎 집록, 『이십사효』, 임동석 역주, 동서문화사, 2012, 1-368쪽.
최부, 『표해록』,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2004, 1-656쪽.
『역주 삼강행실도』, 김정수 옮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0, 1-360쪽.

2. 논문과 단행본

- 강상순, 「한국 고전소설 속 중국 배경과 중국 인식」, 『고전과 해석』 15호, 고전문학
한문학회, 2013, 107-139쪽.
고영란, 「17~18세기 한일문학 속 월경(越境)과 결혼」, 『일본어문학』 68호, 한국일
본어학회, 2016, 155-167쪽.
권혁래, 「〈최척전〉에 그려진 ‘유랑’의 의미」, 『국어국문학』 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 207-235쪽.
_____, 「〈최척전〉 소주, 항주 공간의 문학지리와 스토리텔링」,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73-102쪽.
김경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전〉, 〈김영철전〉」, 『고전문학연구』
43호, 한국고전문학회, 2013, 165-192쪽.
김문희, 「〈최척전〉의 가족지향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61-190쪽.
김용기, 「17세기 동아시아 전란 체험과 다문화 양상 비교」, 『다문화콘텐츠연구』 22
호,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원, 2016, 187-221쪽.
김용철·신승호, 「〈최척전〉 속의 동아시아중해와 대항해시대」, 『국제어문』 69호, 국
제어문학회, 2016, 51-97쪽.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현암사, 2014.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4.
박희병, 「최척전: 16·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 작품론』,
집문당, 1990, 83-106쪽.
소재영,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신선희, 「전란이 낳은 이방인의 삶」, 『장안논총』 33호, 장안대학교, 2012, 1554-1572쪽.
유성용, 『여행생활자』, 사흘, 2007.

- 장경남, 『임진왜란기 포로 체험 문학과 가족애』,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대 한국 문화연구원, 2008, 7-34쪽.
- _____, 『임진왜란 포로 기억의 서사화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역사 연구소, 2012, 41-62쪽.
- 진재교, 『월경(越境)과 서사(敘事):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記憶)-『최척전(崔陟傳)』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연구』 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129-162쪽.
-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37-74쪽.
- _____, 『평온은 나의 힘, 영성 수행자에게 듣는다』, 소영현 외, 『감정의 인문학』, 봄아필, 2013, 233-247쪽.
- _____, 『지속 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 『동방학지』 17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25-55쪽.
- 가야트리 스피박 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 옮김, 그린비, 2013.
- 롤랑 바르트, 『신화론』, 정현 옮김, 현대미학사, 1995.
- 스탠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정태연 옮김, 에코리브르, 2009.
-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 우치다 타츠루, 『하루키씨를 조심하세요』, 김경원 옮김, 바다출판사, 2010.
-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준 옮김, 새물결, 2013.
-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 최영석 옮김, 알피, 2016.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 Gan Yue(甘悅), 『한국 내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실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6.
- Werbner, Pnina & Mattia Fumanti, "The Aesthetics of Diaspora: Ownership and Appropriation", *Ethnos*, Vol.78. No.2, 2013, pp.149-174.

Abstract

Paradox of Return

- The Sense of Impossibility in “Wandering with no Return” as
Represented in *Choecheok jeon*

Choe, Key-Sook(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reexamines Korean societal perspectives on migration/dispersion as a cover for the concept of Korean social imagination, and newly interprets the mythologized process of the “family narrative” (à la Roland Barthes), including restructuring the identity of the subjects (e.g., gender identity). In approaching this research, I analyzed the narrative and characters of *Choecheok jeon*, which is assumed to be a fictional story written in the vernacular *hangeul* that circulated in the 17th century and focuses on the conditions of a “wandering/migrating/drift” life and the concept positive outcomes to the migrational experience. I suggest an analytic methodology for understanding traditional Korean thought, imagination, and viewpoints on the “object/subject/phenomenon” surrounding migration/dispersion and also a reflective take on Korean classical studies.

By emphasizing the “non-script-affective” elements, I shed new light on the oppressed emotions of the migrating/wandering subjects: how their unspoken emotions affect their inner mind, and how they are regarded as “non-existent things.”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s,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 Other vis-à-vis the migration-subject, I argue that problematic issues involving social prejudice and suppression reposition “those who cannot return” as people relegated to incomplete existences.

For this research I analyze the various and multi-layered motivations behind the wandering life as presented in *Choecheon jeon*, including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social status and position of the subject,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using Judith Butler’s concept of “identity competence,” I reinterpret the way the subject is shaped in/voluntarily by his/her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the self-transformation and restructuring implied in the problem of identity transformation, disguise, concealment, and regulation the wanderer experiences.

If the migration-subjects disguise their identities consciously, ironically it means that they already understand “authenticity” and “value.” They mistakenly believe they can hide their identity and therefore try to disguise themselves; the resulting emotional anguish becomes thoroughly concealed, like a transparent object.

From a gendered perspective, the female protagonist Ogyeong repositions her identity as “a man unable to reach the measure of a man” in order to survive and maintain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the surveillance-prisoner, control-obedience society in a male-centric foreign land. This attempt at self-concealment and substitute-performance is represented as an effective way to assimilate, hinting at the migration-subject’s social positionality already in 17th-century Joseon fiction.

In this research I also analyze the structure of fictional imagination in the text: in the process of migration, the subjects must build a self-philosophy in order to exist ethically as human beings regardless of nationality, ethnicity, locality, or language barriers.

(Key Words: *Choecheok jeon*, 17th-century, return, paradox, separation, diaspora, assimilation, humanity, family, self-philosophy, social imagination)

논문투고일 : 2017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5월 2일

수정완료일 : 2017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12일